

투자포커스

올해 첫번째 승부처. 무엇을 사야할까? 유망업종 추천

Strategist 이경민 769-3840 kmlee337@daishin.com

화학, 건설, 조선, 증권 업종이 이끄는 KOSPI 상승세 예상

※ KOSPI의 변화. 주도 업종에 대한 고민

글로벌 유동성 확장 기대와 한국 기업이익 변화에 힘입어 KOSPI는 2,000선 회복에 나섰다. 이제는 유럽발 유동성 확장 효과가 시작된다. 3월부터 KOSPI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포트폴리오 교체 효과(Spill-over effect)에 힘입은 추가상승, 추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시장을 주도할 업종은 어떤 것이 있을까?

※ 고정관념 깨기. 기존 주도업종 모멘텀보다 향후 변화 가능성을 찾아

통상적으로 주도 업종하면 ① 강한 이익모멘텀, ② 실적 신뢰도와 안정성, ③ 가격메리트를 고려한다. 하지만, ① 낮은 이익신뢰도, ②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가격 수준, ② 연속적인 실적쇼크, 재무건전성 이슈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번 KOSPI의 변화는 그동안 익숙했던 것(저성장/저물가, 미국 중심의 유동성/경기모멘텀)과의 결별이 필요한 시점이다. 추세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업종을 선별하는데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다.

※ 세가지 업종 선정기준을 통한 유망 업종 : 조선, 화학, 건설, 은행, 증권

따라서 향후 주도 업종 선정에 세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실적 신뢰도가 개선되고, 2015년 1분기 이후 이익 전망치 개선되는가? 2) 밸류에이션 / 가격메리트가 유효한가? 3) 부채비율이 낮거나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가?

이 세가지 변수의 교집합 권역에 위치한 업종에는 조선, 화학, 건설, 은행, 증권이 있다. 향후 KOSPI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1차적인 후보군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유럽발 유동성 확장의 특징을 고려하면...

이와 함께 고려할 부분은 글로벌 유동성이 재확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 주도권은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간다. 과거 유럽발 유동성 확장국면이었던 2012년 상반기 외국인 매매특징을 보면 1) 비차익 매수 비중이 높아 IT, 금융 매수세는 필연적, 이외에는 2) 시장대비 Underweight되어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업종에 매수가 유입되었다.

※ 이상의 조건들을 감안할 때 향후 KOSPI는 IT, 금융이 중심을 잡고, 조선, 화학, 건설, 증권이 이끌어가는 상승세를 예상할 수 있다.

KOSPI의 변화. 주도 업종에 대한 고민

KOSPI가 변하고 있다. 그동안 부진에서 벗어나 5개월만에 2,000선을 회복했다.

글로벌 유동성 확장 기대와 한국 기업이익 변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

3월부터는 그 변화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제는 유럽발 유동성 확장 효과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3월부터 KOSPI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포트폴리오 교체 효과(Spill-over effect)에 힘입은 추가상승, 추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자세한 내용은 3월 2일 투자포커스 “2015년 첫번째 승부처 [3월 주식시장 전망]”참조)

이제는 무엇을 사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KOSPI 상승국면, 그것도 수개월 동안 이어질 변화라면 주도업종 등장이 필수적이다.

물론, 단기적인 등락과정이 있더라도 예상되는 주도업종을 파악한다면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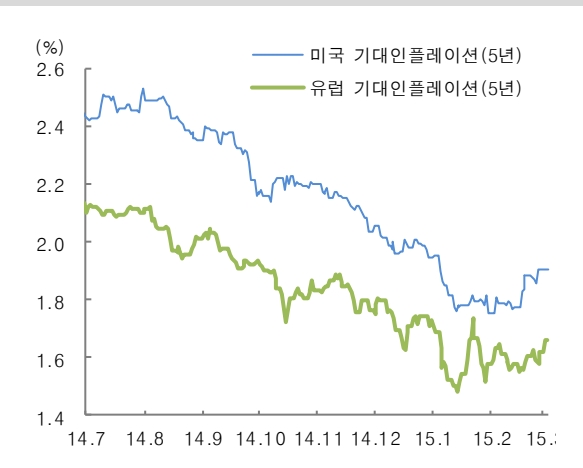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번 KOSPI의 변화와 상승흐름을 주도할 업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부터 이에 대한 고민을 풀어가보겠다.

통상적으로 주도 업종하면 ① 강한 이익모멘텀, ② 실적 신뢰도와 안정성, ③ 가격메리트를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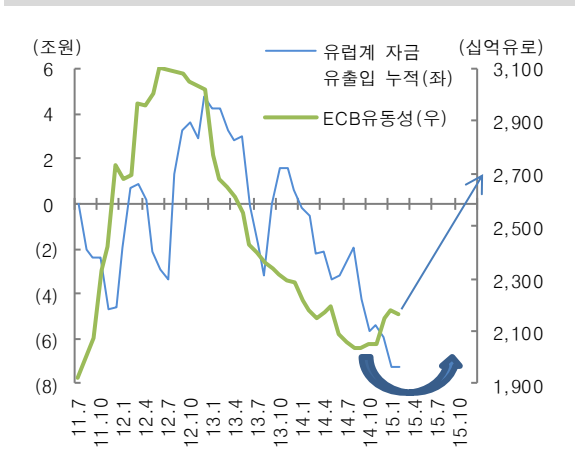
그러나 각각의 변수에 대해 ① 낮은 이익신뢰도, ②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가격 수준, ② 연속적인 실적쇼크, 재무건전성 이슈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1. 미국, 유럽 기대인플레이션 이미 반등 중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유럽발 유동성 확대. 국내 증시로 외국계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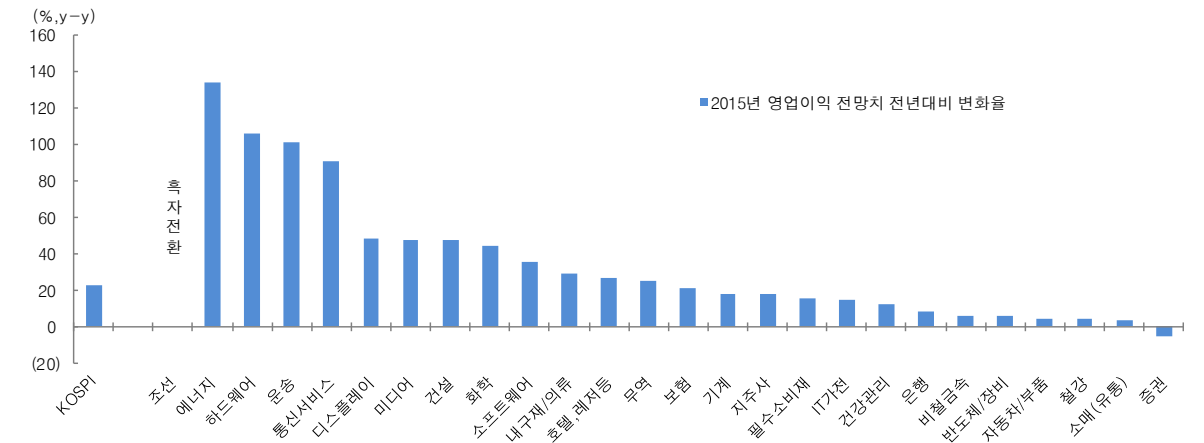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1) 이익모멘텀 강한 업종이 주도주? 지속된 실적 부진, 낮은 이익신뢰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이익모멘텀이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에 대한 투자매력도는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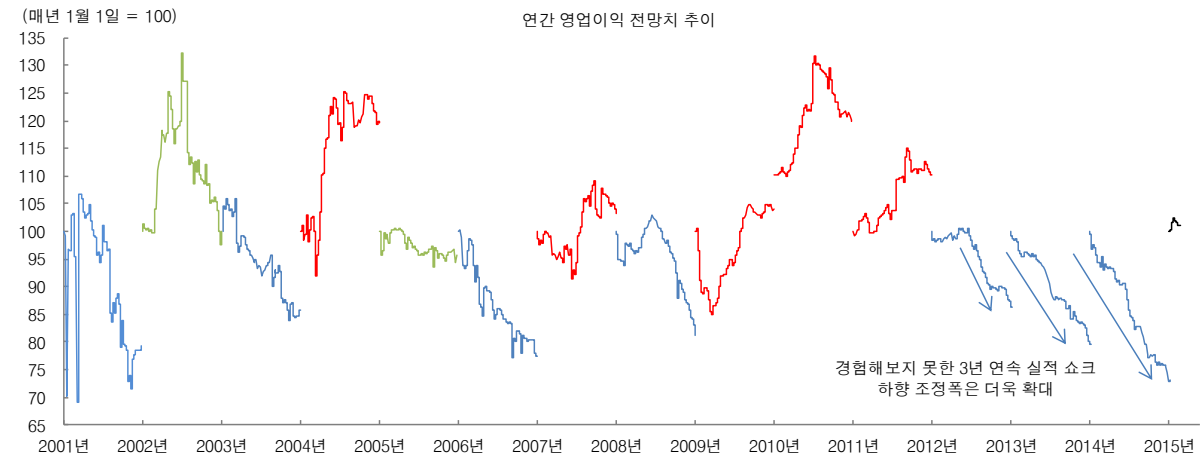
[그림3번] 3월 2일 기준 업종별 이익모멘텀을 보면, 조선(흑자전환), 에너지, 하드웨어, 운송, 통신서비스, 미디어, 건설 업종 순으로 상위권에 위치해있다.
그러나 실적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했다. 2000년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이익 하향조정세, 그것도 급락세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림 4번]은 매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의 연초 이후 흐름이다. 2001년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이익전망치의 추락을 경험했고, 하락의 강도는 더욱 심해져 왔다. 한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실적 쇼크의 연속에 실적 신뢰도가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3. 업종별 이익모멘텀. 조선, 에너지, 하드웨어, 운송, 통신서비스 상위권에 위치



주: 2015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1개월 컨센서스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KOSPI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1개월 컨센서스) 추이



주: 2015년 KOSPI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1개월 컨센서스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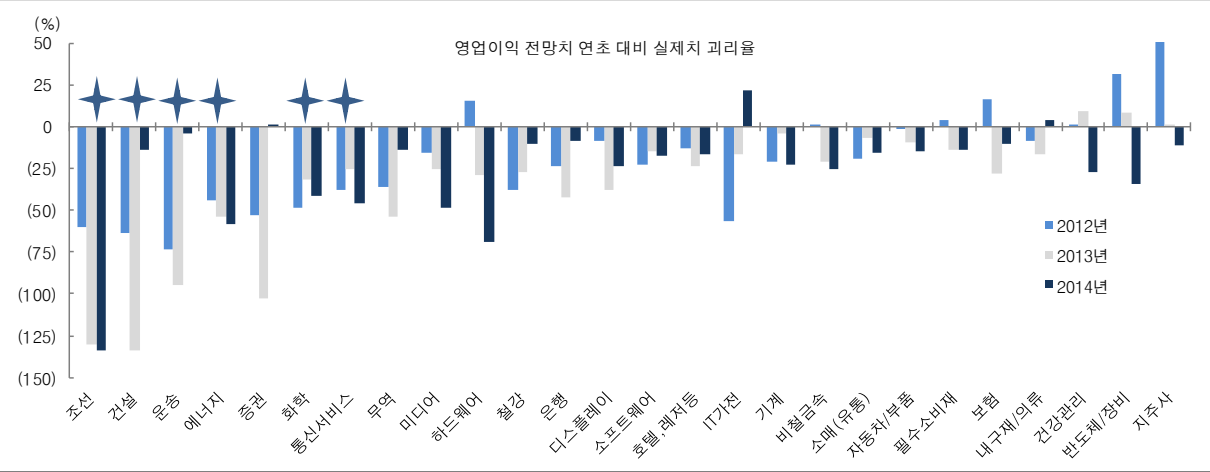
특히, 업종별 이익모멘텀 상위권에 위치한 업종들 대부분이 최근 3년간 KOSPI 실적 부진의 중심 축이었다.

[그림 5번]은 최근 3년간 연초 영업이익 전망치대비 연말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율을 업종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조선, 건설, 운송, 에너지, 화학, 통신서비스 업종이 3년 연속 실적 쇼크/부진 양상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이들 업종의 이익모멘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2014년 초에도 에너지 업종이 이익모멘텀 최상위권에 위치했다. 그러나 2014년말에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 변화율이 (-)를 기록했다.

3년간 이어진 KOSPI 실적 부진/쇼크와 그 중심에 서있는 업종들의 이익모멘텀 개선세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림 5. 업종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1개월 컨센서스) 연초대비 실제치 괴리율



주: 매년 업종별 영업이익 전망치 1개월 컨센서스 기준 연초 수치와 연말 실제치 비교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2) 이익 신뢰도가 높은 업종이 주도주? 밸류에이션 / 가격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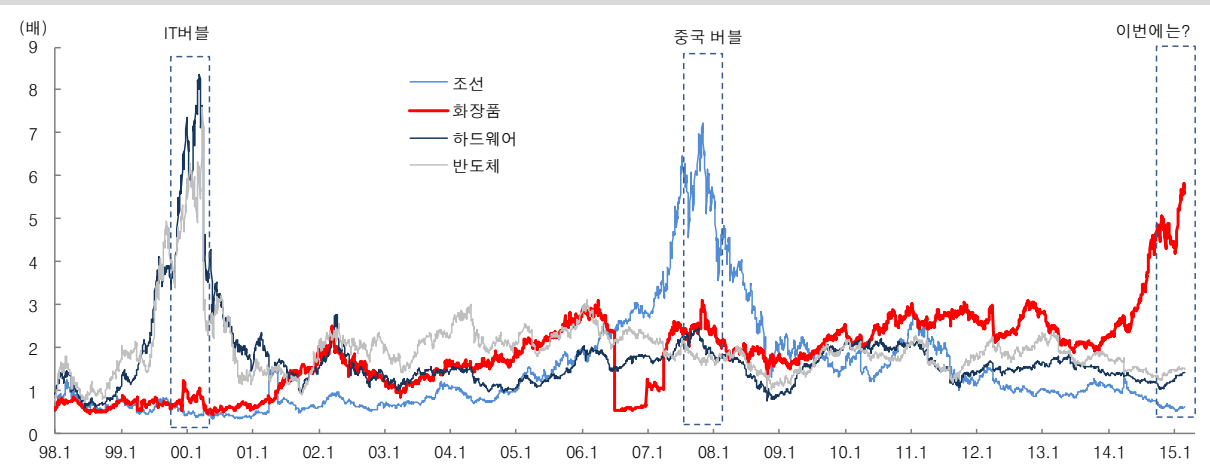
그러면 지금까지 이익신뢰도를 높여 온 업종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그림 5번]을 다시 보면 우측에 있는 지주사, 반도체/장비, 건강관리, 내구재/의류, 보험, 필수소비재, 자동차/부품 등이 KOSPI의 실적 부진, 하향조정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익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 온 업종들이다.

그리고 이들 업종은 KOSPI의 박스권 등락 속에서도 상대적 강세를 이어갔다. 차별적인 실적 신뢰도와 실적의 안정적인 개선세에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다.

실적 신뢰도가 높고 안정적인 성장,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는 업종의 상승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중국 소비 관련주로 분류되었던 업종들의 밸류/가격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6. 주도업종도 확정 실적 기준 PBR 7 ~ 8 배 수준에서 정점 기록



주: 각 업종별 분기 확정실적 기준. 이전 4개 분기의 합을 기준으로 연간 BPS 산출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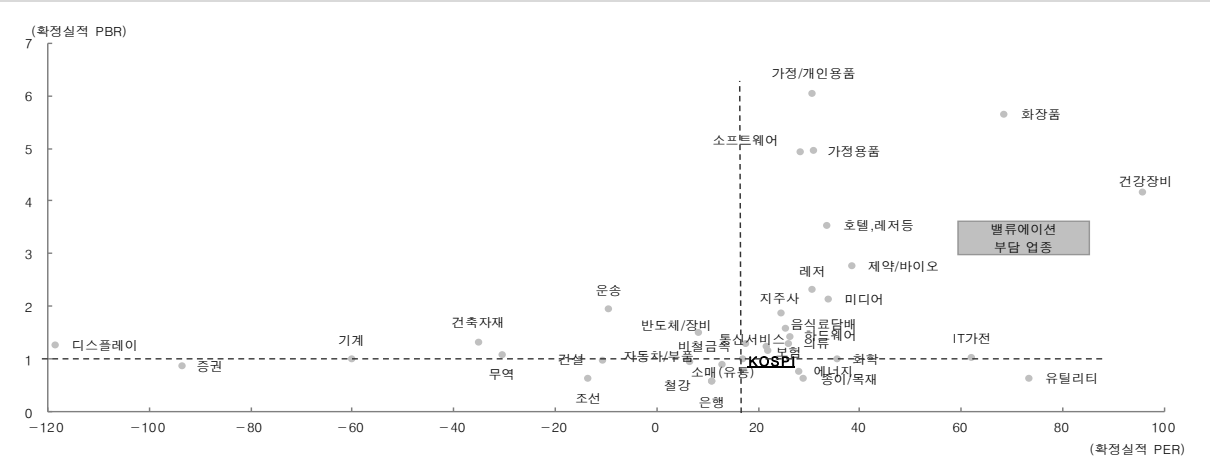
[그림 6번]은 과거 국면별 주도업종의 확정실적 PBR 추이를 보여준다. IT버블 당시 하드웨어, 반도체는 7~8배, 중국 버블 당시에는 조선 업종이 7배 수준에서 고점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인 화장품 업종의 확정실적 PBR은 현재(3월 2일 기준) 5.7배 수준이다.

중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가시화하고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어 중국 소비주의 상승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낮은 시가총액 비중과 함께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은 주도주로서 위치를 잡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림 7번] 업종별 확정실적 PER / PBR Matrix를 보면 중국 소비관련주 대부분이 PER / PBR 모두 밸류에이션 부담 영역에 위치해있다. 최근 소프트웨어, 호텔/레저 등 일부 업종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부분이다.

그림 7. 업종별 확정실적 PBR / PER Matrix. 중국 소비관련주 대부분 밸류에이션 부담권에 위치



주: 각 업종별 분기 확정실적 기준. 이전 4개 분기의 합을 기준으로 연간 BPS / EPS 산출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3) 가격 메리트 높은 업종이 주도주? 가격이 싸면 그 이유가 있어...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밸류/가격메리트이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고 가격메리트가 유효함만으로도 유동성 효과에 힘입어 시장 주도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최근 시크리컬주가 KOSPI 2,000선 회복을 주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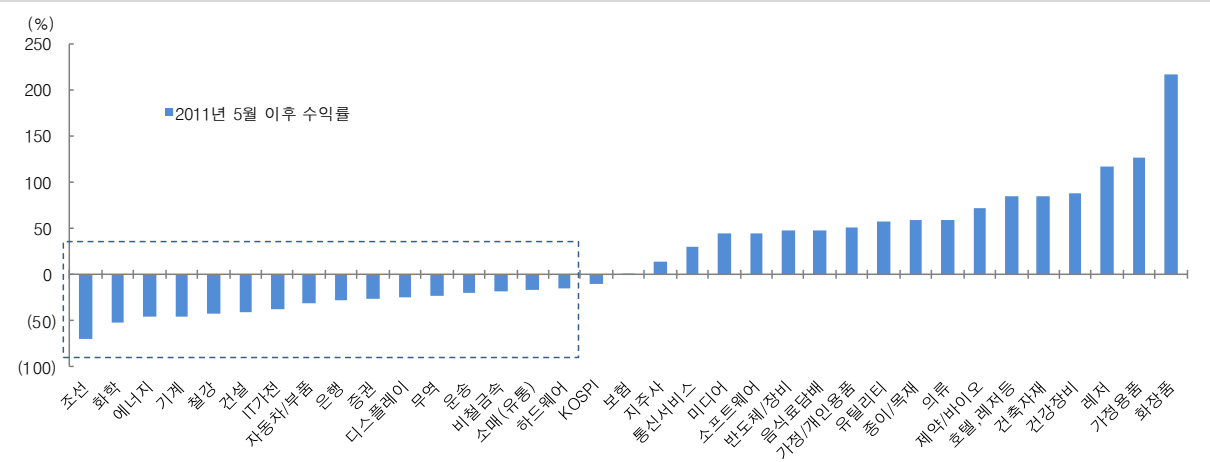
그러나 3월 이후 KOSPI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 반등, 저점탈피 흐름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따라서 가격메리트만으로 주도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2011년 5월 고점 이후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조선, 화학, 에너지, 기계, 철강, 건설 업종이 최하위권에 위치해있다. 그만큼 가격메리트가 높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업종의 면면을 보면 그만큼 가격이 싼 이유가 있다. 조선, 화학, 에너지 업종은 그동안 실적쇼크를 이어왔고, 기계, 건설 업종은 실적 부진은 물론 재무구조 이슈까지도 불거졌던 업종이다.

이들 업종이 KOSPI의 추세적, 구조적 변화를 주도한다고 예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림 8. 2011년 5월 고점 이후 업종별 수익률. 조선, 화학, 에너지, 기계 등 가격메리트 여전히 유효하지만... 싼 이유가 있다



주: KOSPI 고점이었던 2011년 5월 이후 업종별 수익률 산출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익숙한 것들과 결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세가지 기준 제시

이번 KOSPI의 변화는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저성장/저물가에서 벗어날 것이고, 미국 중심의 유동성/경기모멘텀이 유럽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따라서, 그동안 익숙했던 업종 선정 기준에서 벗어나 추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업종 추출에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

향후 주도 업종 선정에 세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실적 신뢰도가 회복되고, 2015년 1분기 이후 이익 전망치 개선되는가? 2) 밸류에이션 / 가격메리트가 유효한가? 3) 부채비율이 낮거나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가?

이는 앞서 점검해왔던 통상적인 세가지 주도업종 선정방법과 현재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상황 Vs. 대응전략 포인트

1) 이익모멘텀이 강한 업종 / 종목 ? = 실적 부진의 지속, 이익에 대한 낮은 신뢰도

⇒ 실적 신뢰도가 회복되고, 2015년 1분기 이후 이익 전망치 개선되는가?

2) 실적 신뢰도가 높은 내수 / 기존 주도주 ? = 밸류에이션 / 가격부담

⇒ 밸류에이션 / 가격메리트가 유효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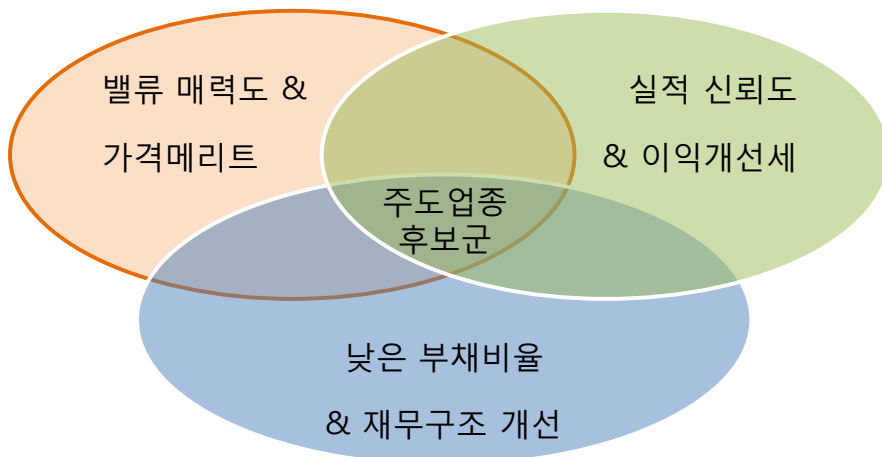
3) 가격메리트가 높은 종목 ? = 연속적인 실적쇼크, 재무건전성 이슈

⇒ 실적 신뢰도가 회복되고, 2015년 1분기 이후 이익 전망치 개선되는가?

⇒ 부채비율이 낮거나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가?

이 세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업종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교집합 영역에 위치한 업종을 주도업종 유망 후보군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시작하겠다.

그림 9. 주도업종 유망 후보군 선정 기준. 교집합에 해당되는 업종은?



Step 1 : 실적 신뢰도 회복, 2015년 이익 전망치 개선 여부

첫번째로 이익 모멘텀과 가격메리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실적을 점검한다.

연간/분기별 이익 전망치와 실제치 간의 괴리를 추이를 통해 실적에 대한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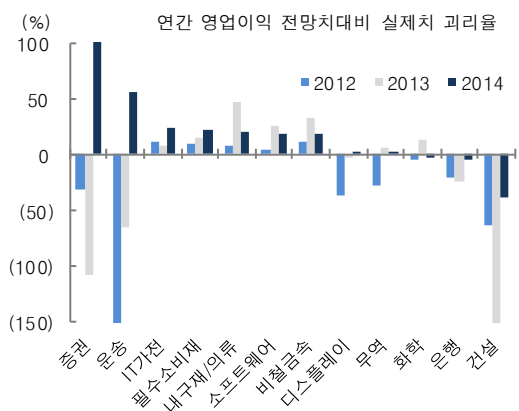
이와 함께 2015년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를 통해 실적 개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우선, [그림 10번]과 [그림 11번]은 연간 / 분기별 영업이익 전망치대비 실제치 괴리를 추이이 축소되거나 플러스 반전한 업종들이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IT가전, 필수소비재, 내구재/의류, 소프트웨어, 비철금속 업종은 꾸준히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제 실적발표 결과를 이어왔다. 반면, 실적 쇼크를 기록했던 증권, 운송 업종은 2014년들어 플러스 반전했고, 디스플레이, 무역, 화학, 은행, 건설 업종은 그 폭을 축소하며 실적 쇼크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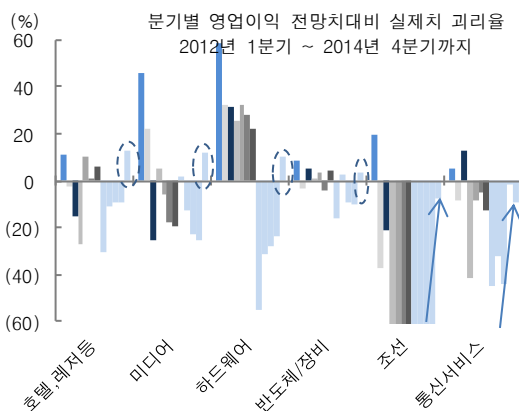
연간 기준으로 변화는 미미하지만, 분기별 추이에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업종에는 호텔/레저, 미디어, 하드웨어, 반도체/장비, 조선, 통신서비스 업종이 있다.

그림 10.연간 영업이익의 전망치대비 실제치 간 괴리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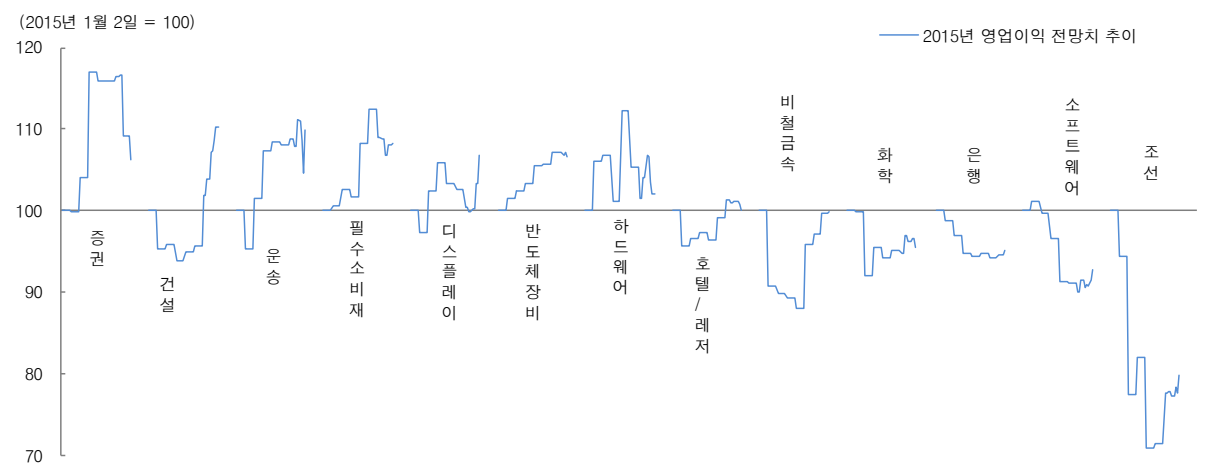
주: 영업이익의 전망치의 컨센서스는 1개월 기준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분기별 영업이익의 전망치대비 실제치 괴리율



주: 영업이익의 전망치의 컨센서스는 1개월 기준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이익 신뢰도 회복이 기대되는 업종 중 2015년 영업이익 전망치 개선/턴어라운드 업종군



주: 업종별 2015년 연간 영업이익의 전망치 추이. 1개월 컨센서스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이들 업종 중 2015년 영업이익의 전망치 추이[그림 12번]를 보면 증권, 건설, 운송, 필수 소비재, 반도체/장비, 하드웨어, 호텔/레저, 비철금속 업종의 개선세가 뚜렷하다. 화학, 은행, 소프트웨어, 조선 업종은 최근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익 신뢰도 회복, 이익 개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는 증권, 건설, 운송, 필수 소비재, 반도체/장비, 하드웨어, 호텔/레저, 비철금속, 화학, 은행, 소프트웨어, 조선 업종이 있다.

Step 2 : 밸류에이션 매력도와 가격메리트 점검

두번째로 밸류에이션 매력도와 가격메리트를 점검한다.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현재 확정실적 기준 PBR을 사용한다. 낮은 이익신뢰도, 실적 쇼크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낮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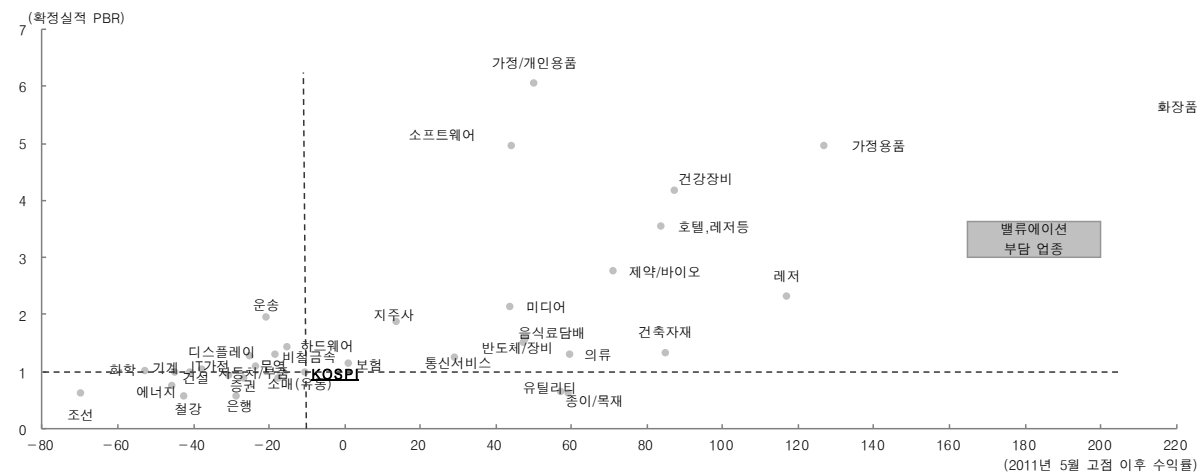
가격메리트는 2011년 5월 고점 이후 업종별 수익률을 보았다. 2011년 5월 고점 기록, 급락한 KOSPI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 고점대비 가격메리트를 점검했다.

그 결과는 [그림 14번]에서 볼 수 있다.

가격, 밸류에이션 모두 매력도가 높은 업종에는 조선, 화학, 에너지, 기계, 철강, 건설, IT가전, 자동차/부품, 은행, 증권, 디스플레이, 무역, 비철금속, 소매(유통)이 있다.

최근 KOSPI 2,000선 회복과정에서 1차 정상화 과정을 거친 업종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이제는 이들 업종의 2차 상승 가능성을 이익모멘텀, 재무건전성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림 13.업종별 확정실적 PBR / 2011년 5월 고점 이후 수익률 Matrix. 밸류에이션 매력도 / 가격메리트 유효한 업종 추출



주: 각 업종별 분기 확정실적 기준. 이전 4개 분기의 합을 기준으로 연간 BPS 산출
2011년 5월 고점 이후 업종별 수익률 산출. 추세적인 변화를 예상하기 때문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Step 3 : 재무건전성 점검

마지막으로 점검할 부분은 재무건전성이다.

지난 3년 동안 KOSPI는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과 실적 부진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잊혀질만하면 재무건전성 이슈가 부각되었고, 업종/종목별 변동성을 크게 자극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기계, 조선, 건설 업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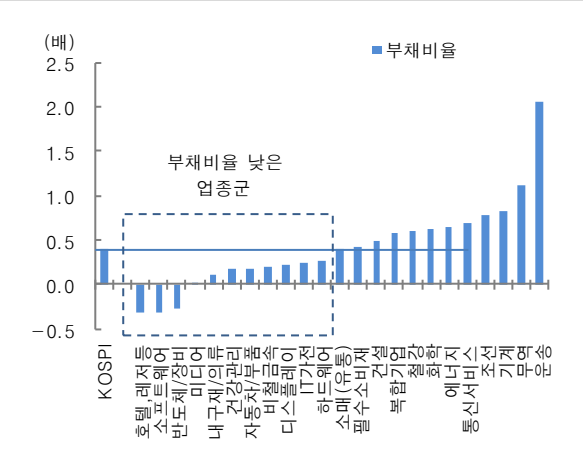
따라서 업종 선정에 있어서는 부채비율 점검은 필수사항이라 하겠다.

일단, KOSPI의 부채비율(0.4)보다 낮은 업종에는 호텔/레저, 소프트웨어, 반도체/장비, 미디어, 내구재/의류, 건강관리, 자동차/부품, 비철금속, 디스플레이, IT가전, 하드웨어 업종이 있다.

한편, 부채비율이 높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거나 안정권에 진입한 업종에는 조선, 화학, 건설, 운송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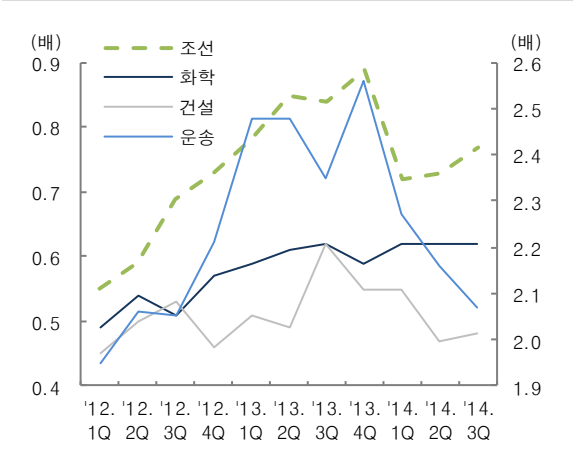
결국, 재무건전성이 유효하거나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에는 호텔/레저, 소프트웨어, 반도체/장비, 미디어, 내구재/의류, 건강관리, 자동차/부품, 비철금속, 디스플레이, IT가전, 하드웨어, 조선, 화학, 건설, 운송이 추출되었다.

그림 14.업종별 부채비율. 재무건전성 유효한 업종군 추출



주: 2014년 3분기 확정실적 기준
자료: WISEF,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부채비율 감소 업종군. 조선, 화학, 건설, 운송



자료: WISEF,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3가지 기준의 교집합에 위치한 주도 업종 후보군

: 조선, 화학, 건설, 은행,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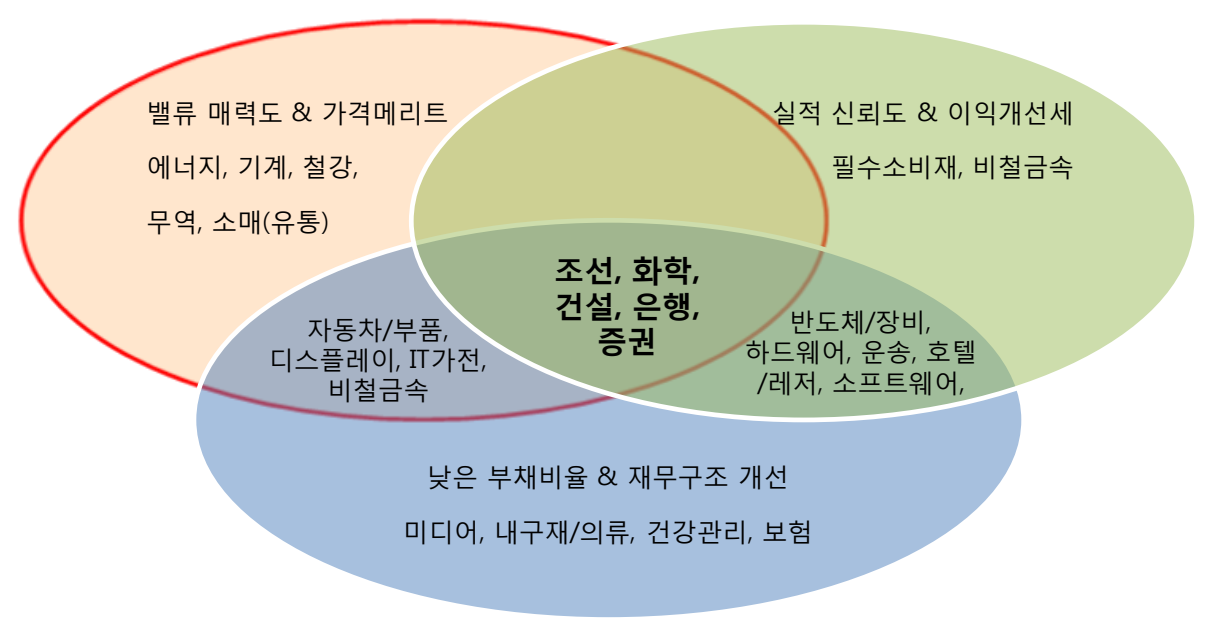
지금까지 다음 세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이익 신뢰도 회복, 이익 개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
: 증권, 건설, 운송, 필수소비재, 반도체/장비, 하드웨어, 호텔/레저, 비철금속, 화학, 은행, 소프트웨어, 조선 업종이 있다.
- 2) 밸류에이션 / 가격메리트가 유효한 업종
: 조선, 화학, 에너지, 기계, 철강, 건설, IT가전, 자동차/부품, 은행, 증권, 디스플레이, 무역, 비철금속, 소매(유통)
- 3) 재무건전성이 유효하거나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
: 호텔/레저, 소프트웨어, 반도체/장비, 미디어, 내구재/의류, 건강관리, 자동차/부품, 비철금속, 디스플레이, IT가전, 하드웨어, 조선, 화학, 건설, 운송

이들 업종 중 교집합에 위치한 업종은 조선, 화학, 건설, 은행, 증권 업종이다.
향후 KOSPI의 상승국면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이끌고 갈 수 있는 업종 후보군이라 하겠다. 밸류/가격메리트, 실적기대감, 재무안정성이라는 3박자를 갖춘 업종이다.

그림 16.3 박자를 갖춘 업종: 조선, 화학, 건설, 은행, 증권 업종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유럽발 유동성 확장국면 특징

: 외국인 보유비중이 낮고, 밸류매력도가 유효한 업종 집중 매수

이와 함께 고려할 부분은 글로벌 유동성이 재확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점이다.

특히, 글로벌 유동성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간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중장기, 유럽은 모멘텀 투자자로 구분한다. 이는 유럽발 유동성 확장국면이었던 2012년 상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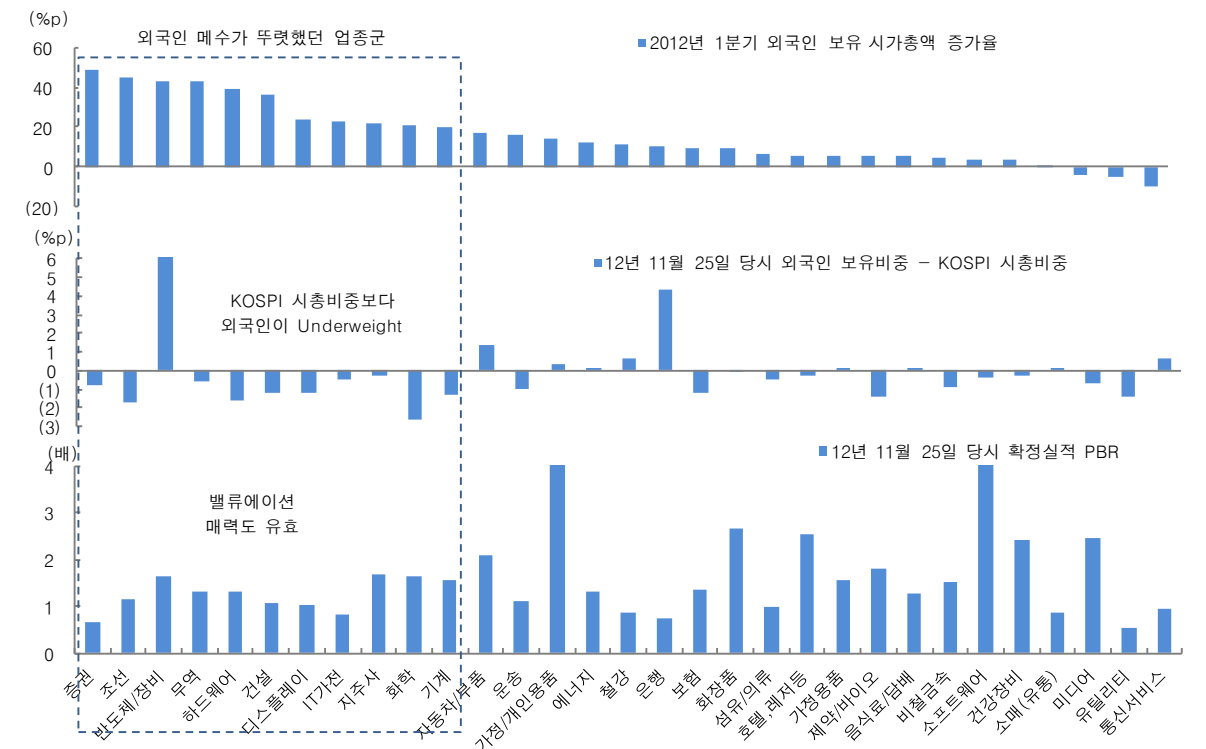
당시 외국인의 매수가 뚜렷했던 업종에는 증권, 조선, 반도체/장비, 무역, 하드웨어, 건설, 디스플레이, IT가전, 지주사, 화학, 기계 업종이 있다.

이들 업종 중 반도체/장비를 제외하고는 KOSPI 시총보다 외국인 보유비중이 낮았다. 즉, 외국인이 시장대비 Underweight하고 있던 업종이다.

이와 함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 2012년 11월 25일 당시 확정실적 PBR기준 외국인 매수가 유입된 업종 평균은 1.26배이다. 시장 전체 평균인 1.78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즉, 유럽계 자금이 유입되는 국면에서의 외국인 매수 특징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고 시장대비 보유비중이 Underweight된 업종이다.

그림 17. 2011년 11월 ~ 2012년 4월까지 외국인 비중확대 업종의 특징.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고 시장대비 Underweight 업종



주: 1) 외국인 보유비중 저점이었던 2011년 11월 25일 ~ 외국인 보유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2012년 4월 3일까지 외국인 보유비중 증가율 산출
2) 동 구간이 시작된 2011년 11월 25일 당시 외국인 보유비중 - KOSPI 시가총액 비중과 당시 확정실적 PBR 산출
자료: W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IT, 금융이 중심을 잡아주고

화학, 건설, 조선, 증권이 이끌어가는 장세 예상

현재(3월 3일) 기준 외국인 보유비중과 KOSPI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반도체/장비, 은행, 자동차/부품, 통신서비스, 철강,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23개 업종을 Underweight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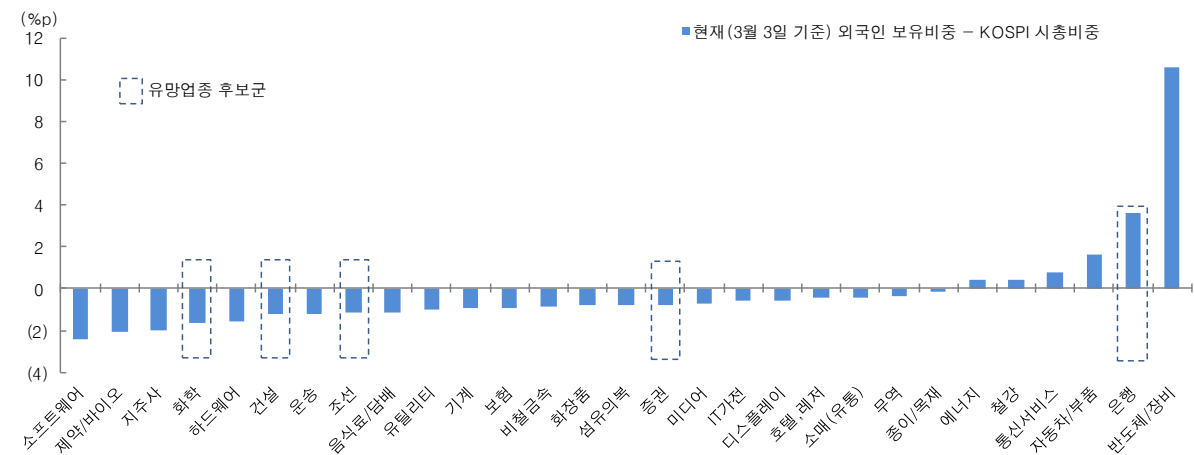
특히, 이들 업종 중에서 앞서 살펴본 유망 업종 후보군을 살펴보면 화학, 건설, 조선, 증권 업종이 외국인 보유비중 Underweight 영역에 위치해있다.

3박자를 갖춘 화학, 건설, 조선, 증권 업종으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가격, 밸류, 이익, 재무안정성에 수급모멘텀이 가세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인 순매수 유입시 비차익 매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Overweight되어있더라도 은행, 반도체 장비에 유동성이 유입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수급이 비어있는 업종 중 모멘텀, 매력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탄력적인 반등세가 가능하다.

결국, 향후 KOSPI의 상승흐름은 IT, 금융이 중심을 잡고, 화학, 건설, 조선, 증권 업종이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18.3월 3일 기준 외국인 보유비중대비 KOSPI 시가총액 비중 괴리율. 23개 업종 외국인 보유비중 Underweight



주: 3월 3일 기준 외국인 보유비중대비 KOSPI 시가총액 비중 차이 산출.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